‘당신의 손’ 동행재활요양병원이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의료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모범이 되는 병원

최선 환우의 일상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

사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병원

최고 의료장비·실력 갖춘 의료진
제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병원 노력

류기준 대표원장

“동행재활요양병원 의료진은 모든 환우가 제 부모라는 생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은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의료 기술력은 물론, 어떤 대우를 받는 지 고민이 된다”며 “제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표원장은 막상 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실지 막막하고 가족들의 고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원장은 “부모님을 이곳으로 모셔도 당당하고 안심이 되는 동행재활요양병원이 될 것”이라며 “환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우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많은 재활요양병원이 있음에도 그가 개원을 선택한 것은 “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보고자 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는 탄탄한 시설을 갖춘 쾌적환 환경의 재활요양병원이 상당수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의료설비와 재활치료시설 등 전반적인 의료설비는 물론, 젊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류 대표원장이 시내 외각에 주로 설립되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광주 도심 한 가운데 병원을 마련한 것도 환우는 물론 환우 가족들을 생각해서다.

“외곽에 있으면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 힘들겠죠. 출근 하는 길에, 퇴근 하는 길에, 때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모님과 자식이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저 역시 자식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모를 모셔도 될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류 대표원장이 병원을 개업함에 있어 얼마나 꼼꼼함을 기했는 지는 병원을 찾아 살펴보면 잘 알 수있다.

우선 병상간 간격도 현행법 기준보다 더 넓게 배치해 환자들이 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도록 했다. 또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엇보다 류 원장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류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사는 ‘사회적입원’이다”며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로 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준 대표원장은 “누가 와도 마음 편하게 믿고 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진 모두가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위의 누군가 힘들어할 때 베푸는 작은 배려가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19년 개원…신체 기능·장애 극복 체계적 재활
개인 맞춤형 양·한방 협진진료 치료효과 극대화
어르신 생일잔치·헌혈 동참·물품 기탁 등 나눔도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광주 동행재활요양병원(대표원장 류기준)이 환자와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내 부모를 모셔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동행’ 이라는 이름처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으로, 동행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앞서가는 의료를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노령의 환자가 병원에서 머무른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양·한방 협진 시너지 =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에 개원했다. 올해로 6년차 에 접어드는 병원은 광주 주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 우선 한의사(김도연 원장)를 새로 영입하면서 전문 의료진을 더 강화했다.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과 한의학박사 최태진 병원장을 비롯해 재활의학과전문의 김정민, 조경은 원장과 외과전문의 박철홍 원장 등 전문 의료진이 포진해 있다.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의학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 완화와 면역력 회복, 기력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을 분석하고, 이후 침·약침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탕약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거듭 성장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로,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도 운영된다.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서랍장, 휴게·면회 공간 등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광주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책상 등 매트 운동부터 워킹레일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에게는 도수치료, 복합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치료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연하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CPM(수동관절운동기구), 신장분사, ESWT(체외충격파), 도수치료(수술 후·중추), 견인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극초단파치료 등 15종에 달한다.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 = 동행재활요양병원의 진짜 가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시스템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행복을 함께하려는 ‘동행’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동행요양병원 전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 굽는 데이’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잔치’와 ‘이미용 하는 날’, ‘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를 열며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때면 전 임직원들은 발 벗고 나서 혈액 나눔에 동참한다. 또 남구 서동 ‘사랑의 식당’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 제공 및 배식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물품 기탁식’을 열고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라면을 북구 자원 관리팀에 전달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일상회복지원사업’과 관련돼 진행되는 ‘건강마음돌봄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과 이동진료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추운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및 겨울이불을 북구 중흥동 소재 지역주민에게 후원했으며, 이날 임직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